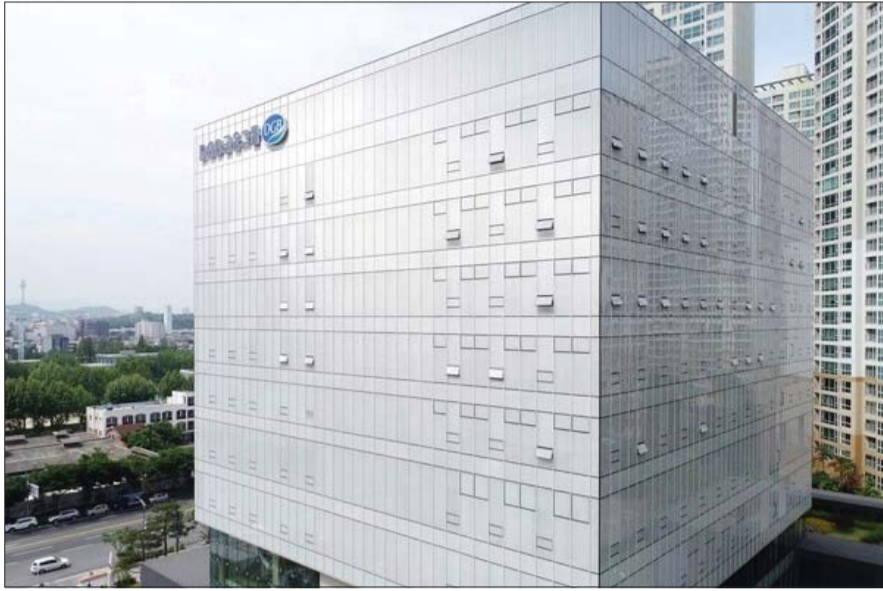


DGB금융 차기회장 이목집중... 전·현직 대구은행장 맞붙나

김태오 회장 이달 임기로 용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과제 황병우 등 내부인사 전망 유력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2본점에는 DGB금융지주가 위치해 있다. /DGB금융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DGB금융 내부 후보군이 차기 회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심사·인가 방안을 의결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기존 은행업 인가 반납 없이도 심사를 통해 영업 인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은 DGB금융그룹의 대구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대구은행의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기를 끝으로 용퇴를 선언한 김태오 회장의 뒤를 이을 DGB금융의 차기 회장 결정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GB금융 회추위는 지난 1월 19일

비공개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을 마쳤고, 2월 중 숏리스트(2차 후보군) 확정과 공개를 위해 후보 평가를 진행 중이다.

DGB금융에 따르면 DGB금융은 롱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회추위 면접 ▲외부기관 전문가 인터뷰 ▲외부기관 행동면접 평가 및 인적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숏리스트 후보군을 선정한다.

2차 후보군 선정까지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금융권에서는 내부 후보군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유력한 외부 후보군이 후보직을 고사했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과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선 내부 사정에 밝은 DGB금융 내 인사가 유리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내부 후보군으로는 현직 대구은행장으로 CEO 후보군에 포함된 황병우 대구은행장, 임성훈 전 대구은행장, 김경룡 전 DGB금융 회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DGB금융의 차기 회장 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외부기관 활용 시 모범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지 구성 등 평가체계 점검 ▲개별 인터뷰 등 평가지원 ▲평가 참여 ▲보고서 작성·액션 플랜 마련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의 활동에 공정성을 더하는 방안이다.

현재 DGB금융의 회장 결정 진행과정은 회추위 면접을 제외한 전 과정에 외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금감원, 정치 테마주 특별단속...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22대 총선 앞두고 급등락 반복 “합리적 근거 없어... 위험성 높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이미 급등락을 반복하자 감독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총선 테마주는 이미 과열된 상황이다.

주요 정치 테마주의 전체 시가총액은

부각되기 시작한 10월 4일 3조8118억원에서 지난 23일 4조2286억원으로 10%가 넘게 뛰었다.

정치 테마주 지수는 작년 10월 초 대비 최고 53.80% 급등했다. 일별 주가등

락률은 지난해 10월 4일에서 올해 1월 23일까지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치테마주의 종목별 시가총액은 대부분 1000억원 미만으로 품문 등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운 중·소형주였다.

정치 테마주는 주로 기업의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과 지연·학연 등으로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이 정치인과 학교 동문이거나 정치인의 고향이나 선거구에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식이다.

주요 정치테마주들은 주가는 급등했지만 일반 종목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

다. 증시나 언론 등에서 주로 언급되는 40여개 종목 기준으로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정치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종목 평균 10.1%를 밑돌았다.

선거철마다 정치 테마주의 주가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고, 선거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하락해 주가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다. 주가 하락 시점과 변동폭 등은 종목별로 달라 주가 예측도 어렵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하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매매분석 및 텔레그램, 주식커뮤니티를 통한 품문 유포 세력과의 연계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테마주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와 조기 대응을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울릉도 2024 ULLEUNG-DO SNOW FESTIVAL
나리분지 일원 눈축제

1-2월 상시 프로그램	튜브 눈썰매, 노지 캠핑·차박, 스노우 래프팅, 눈꽃 소원 나무	2월 1-3일 프로그램	눈사람 만들기 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 울릉도 겨울 사진전, 얼음 조각 전시, 자동차 극장,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	-------------------------------------	--------------	---

울릉군